

청소년동반자와 내담자 부모의 부모상담 경험에 관한 연구*

배희분 이미현† 노성덕 정재우 김태성 김경희
상명대학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의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상담에서 청소년동반자와 부모가 무엇을 경험하는지 그 생생하고 독특한 느낌과 견해를 탐색하기 위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활용한 질적분석을 수행하였다. 청소년동반자와 내담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3가지의 주제와 1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는데, 3가지의 주제는 부모상담의 중요성, 부모상담의 어려움, 그리고 효과적이었던 개입 등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주제인 '부모상담의 중요성'에는 3개의 범주가 포함되었는데, 부모상담의 효과, 효과와 관련된 변인, 찾아가는 상담에서 있어 부모상담의 의미 등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주제인 '부모상담의 어려움'에서 추출된 3개의 범주는 청소년동반자 사례 자체의 심각성, 부모상담의 고비, 그리고 구조적 문제 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이었던 개입'이라는 주제 하에 전문성과 신뢰, 성공적인 첫 면담, 실제적인 도움, 상담 외적인 관심과 도움 등 4개의 범주가 포함되었다. 각 범주별 하위범주와 예시문을 제시하였고,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점과 시사점, 연구의 제한점을 언급하였다.

* 주요어 : 청소년동반자, 부모상담, 포커스그룹 인터뷰

* 본 연구는 2015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수행된 '청소년동반자 부모상담 프로토콜 개발 연구'를 발췌,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612-020) 부산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크(7층~10층), Tel: (051)662-3124, E-mail: meehyun@kyci.or.kr

서론

부모가 자녀의 삶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지지를 보내는 것은 자녀가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이루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이자 보호요소로 작용한다. 지난 수세기 동안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태도, 관심과 감독 등 부모관련 변인들이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와 자존감, 삶의 만족 등의 긍정적 산물을 증가시키며(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윤연정, 이미숙, 전춘애, 2011; 정병삼, 2010; Brown, Mounts, Mounts, Lamborn, & Steinberg, 1993), 비행과 학교부적응, 인터넷 사용상의 위험을 낮추거나 완충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이상균, 2008; 조윤주, 2013; Kerr, Stattin, & Burk, 2010).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일견 당연한 사실의 확인일 수 있으나 청소년상담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자들에게 있어서는 청소년 내담자에게 이처럼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모라는 외부 요인을 상담 과정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언제나 어려운 숙제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자살, 인터넷중독, 학교폭력 및 성폭력, 가출과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우려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위기청소년 사례의 경우 청소년만큼이나 부모 역시 위기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부모에 대한 개입 없이 청소년 자녀만 다루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위기청소년 상담 영역에서 청소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개입과 상담이 중요한 열쇠가 된다.

청소년상담에 있어서 부모상담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왔고, 청소년상담 과정 중에 부모상담을 병행하면서 그것이 잘 운용되었을 때 청소년상담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사실이 일관성 있게 밝혀져 왔다(기채영, 2006; 김광웅, 2009; ; 류수진, 2011; 주선영, 김광웅, 2005; 최명선, 김광웅, 2005; Greenwald, 2002; McGuire & McGuire, 2008). 즉 부모가 상담에 협조하면 아동 및 청소년의 상담 효과가 더 크고(Greenwald, 2002), 부모의 지지와 협조는 자녀 상담에 필수적 요소이며(Schaefer, 2006), 자녀뿐 아니라 부모까지 포함한 치료동맹을 맺어야 부모의 변화와 자녀의 변화가 상호보완적 작용을 통해 성공적인 상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전혜리, 2010)는 것이다. 기채영(2006)은 상담이 종결된 후에도 부모가 상담자와 동일하고 일관된 반응을 유지하여 자녀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담효과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청소년상담 영역에서 부모상담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이로 인하여 부모상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상담내용의 범위와 수준에 대해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박자영, 2009).

청소년상담자에 있어 부모상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부모상담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상담자들은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나 이해, 청소년상담의 기술이나 상담자로서의 자질 등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을 받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상담에 대

해서는 교육이나 슈퍼비전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2017년 현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전국의 청소년상담자들을 위해 보급하고 있는 상설 이러닝 연수 교과목 총 45개 중에 부모상담과 관련된 과목이 ‘부모상담의 이해’와 ‘가족상담’ 단 2개 과목에 불과하다(https://edu.kyci.or.kr/online/app/list_standing.asp). 이에 대해 강은주(2013)는 아직 부모상담의 전 과정에 관한 이론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청소년상담자들이 부모상담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주저함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상담자 요인과 부모 요인 두 가지 방향으로 진단하고 있다. 첫째 상담자 요인이란, 청소년 상담자들이 부모상담 이론과 기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 또는 부모의 강한 저항을 극복해낼 상담자의 자신감 부족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부모상담을 어렵게 느낀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전문적인 상담교육과 슈퍼비전을 충분히 받고 상담경험이 풍부한 경우(이운주, 김계현, 2002),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녀를 낳아 길러 본 양육경험이 있는 경우(주선영, 김광웅, 2005)에 부모상담의 어려움을 덜 느낀다고 하였다. 두번째 요인은 부모요인으로, 부모의 심리적 문제, 정신병리, 비협조적인 태도와 반응, 부모의 낮은 이해수준과 통찰 부족 등이 여기에 속한다. 김광웅(2009)은 부모상담에서 상담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부모의 정신병리나 비협조적인 태도이며, 이런 부모들을 상담할 때는 부모의 저항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상담동맹을 잘 형성해야 상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서 조력하는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패러다임 자체가 개인심리적 접근이 아닌 생태체계적 접근을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가장 밀접한 환경으로서 부모에 대한 개입과 부모상담을 주요 전략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여성가족부(2016)에서는 청소년동반자를 “청소년상담 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연계하며,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이 기존의 상담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상담자가 가정이나 학교 등 청소년 내담자의 현장으로 방문하여 상담이 이루어지는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점이다. 그런데 말 그대로 찾아가지 않으면 만나기 힘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에 대상자가 처한 가정 환경이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매우 취약한 경우가 많다. 청소년동반자 내담자군의 가정이 구조적 측면에서 해체가정 비율이 더 높고(황순길 외, 2014), 기능적 측면에서도 역기능적이라는(오경자, 이기학, 지승희, 2005; 정재우, 2013) 선행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청소년상담 사례에 비해 청소년동반자들이 다루는 사례들이 위기정도가 더 심각하다(권현용, 2013; 김동일, 최수미, 2008; 노성덕, 이대형, 2011). 이러한 고위기 사례들의 경우 부모들은 이미 자녀들과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고 앞으로 자녀의 변화가 잘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나 동기가 더 적다. 청소년동반자를 대상으로 한 황순길 외(2014)의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약 75%가 부모상담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하지만 부모가 상담에 시간 내기가 어려운 편(48.0%)이라고 응답하여, 부모 상담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으나 실제 여건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문제유형에 따른 잠재계층 분석 결과 고위험 계층과 저위험 계층, 두 개의 계층으로 분류가 되었으며 각 계층별 상담요구를 분석한 결과 상담에 도움이 되는 요인에 있어서는 두 계층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상담의 효과를 저해하는 방해요인은 계층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 성격, 우울한 기질 등 내적 방해 요인과 함께 가족의 무관심, 갈등, 불화 등 가족 방해요인이 고위험 계층의 경우 저위험 계층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동반자 사례, 그 중에서도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고위험 사례의 경우 부모와 가족에 대한 상담개입이 더욱 절실함을 시사한다. 요컨대 청소년동반자 내담자군의 부모와 가족은 일반 청소년상담 내담자에 비해 자원이나 대처능력 면에서 더 취약함을 의미하며 부모상담을 진행함에 있어도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상담에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상담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간 이루어진 청소년동반자 관련 연구들은 주로 활동매뉴얼 개발, 사례관리 모형 개발 등 표준화된 상담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어 왔으며, 상담경험에 대한 연구라 해도 거의 대부분 방문상담자로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는 청소년동반자의 정체감과 소진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이은선, 2016). 또한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쌍방의 경험이나 생각의 접점과 차이점을 밝히기 위한 시도는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방법을 통해 많이 이루어져 왔다(김성재, 김후자, 이경자, 이선옥, 2000; 이수희, 유태명, 2008; Krueger & Casey, 2000). FGI 방법은 작고 중요한 발견을 밝히는 것, 독특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통해 어떤 현상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는 것에 주목한다. 이 때 얻어진 세부적이고 경험적인 정보들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주제 또는 서비스 행위에 대해 좀 더 깊은 느낌과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Greenbaum, 2001, 신경림 외, 2004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GI 방법을 통해 청소년동반자와 그 대상 청소년의 부모들이 실제 상담에서 경험하게 되는 생생하고 독특한 것들, 의미 있는 경험들과 깊은 느낌을 발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부모상담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한다.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2년 이상 지속되어 온 청소년동반자 사업이 그간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양질의 상담모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 상담의 질적, 내용적 측면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때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례의 위기적 특성이 강하고 방문상담이라는 특수한 형태를 띠는 청소년동반자 상담과정 중에서, 상담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온 부모상담을 청소년동반자와 부모가 어떻게 경험하는지 FGI 방법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내담자의 부모를 만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들에게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은 물론, 나아가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온 주요 청소년상담 정책인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질적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청소년동반자와 내담자의 부모는 부모상담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연구방법

연구참여자

청소년동반자와 대상청소년 부모의 부모상담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를 보고 참여에 동의한 청소년동반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고, 이들에게 부모상담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되는 내담자의 부모를 소개받아 부모 FGI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 참석한 청소년동반자는 총 6명으로 연령은 30대~ 50대였으며, 경력은 최소 2년 이상, 최대 5년 8개월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부모는 3명이 섭외되었고, 모두 어머니들로 구성되었다. 어머니들의 연령은 40대 중후반이었으며 상담을 받은 기간은 3개월, 회기 수로는 10회기에서 12회기 정도로 나타났다.

<표 1> 참여자 정보

청소년동반자					부모			
지역	성별	연령	근무형태	경력	지역	성별	연령	상담회기
경기	여	46	전일제	5년 8개월	경기	여	48	3개월/ 12회기
경기	여	49	전일제	3년 8개월				
경기	여	48	시간제	5년 6개월	경기	여	46	3개월/ 12회기
경기	여	50	시간제	2년 9개월				
경기	여	33	시간제	3년 5개월	경기	여	47	3개월/ 10회기
경기	여	32	시간제	3년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의 전체적인 절차는 Krueger(1998)가 제시한 FGI 분석과정 4단계 지침에 따랐다. 먼저 1단계인 시작단계에서 연구비지원기관의 연구심의를 거쳤으며, 연구의 목적과 내용이 설명된 공문을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발송하여 참여자를 섭외한 후 참여에 동의한 청소년동반자와 부모들에게 인터뷰 질문이 포함된 안내 메일을 보냈다. 인터뷰에 사용할 질문은 아동가족학 전공 박사 1인, 상담 및 교육심리 전공 박사 4인 등 공동연구자들이 수차례 검토 작업을 거쳐 개발했다. 청소년동반자용 핵심질문은 “부모상담을 하면서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십니까?”, “부모상담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가장 힘들었던 일은 어떤 것입니까?”

등으로 구성되었고, 부모용 핵심질문은 “부모상담을 통해 가장 도움받으신 점, 혹은 가장 힘들었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등으로 구성되었다. 2단계인 인터뷰 진행단계에서 청소년동반자 그룹과 부모 그룹별로 각기 별도의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고 참여의사 철회 및 녹음에 대한 안내 등을 포함한 문서를 배부하여 서면동의를 받았다. 인터뷰 내용은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하였고 연구보조자는 관찰과 더불어 특이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인터뷰 직후인 3단계에서는 주요 논점과 진행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디브리핑 노트를 정리하였다. 4단계 자료분석 단계에서는 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Hsieh와 Shannon(2005)이 제시한 전통적 내용분석(conventional content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가장 널리 쓰이는 질적 자료 분석 방법 중 하나로, 연구자가 미리 선정한 하나의 이론을 바탕으로 자료를 연역적으로 조직화하는 이론지향적 내용분석(Directed content analysis)이나 특정 단어 또는 내용이 자료에 등장하는 빈도를 양화해서 분석하는 가산적 내용분석(summative content analysis)과 비교했을 때 참여자의 독특하고 고유한 관점을 잘 보여주고 원자료를 낱것으로 그대로 반영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필사된 수집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의미 있는 단어, 문장, 단락을 선택하여 인터뷰 참여자들의 언어로 개방 코딩을 한 후에 그 중에서 유사한 것들을 한 데 묶거나 서로 다른 것들을 구분함으로써 하위범주를 찾았으며, 이들을 위계적으로 다시 조직하여 범주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주제를 도출하여 명명하였다. 분석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자료 분석의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비교분석하였으며 공동연구자들이 결과에 대해 동의할 때까지 분석을 반복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동반자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FGI를 분석한 결과, 크게 3가지의 주제와 1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당초 연구기획 단계에서는 청소년동반자와 부모의 부모상담 경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분석의 결과는 이와 달리 하위범주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동반자와 부모가 진술하는 경험의 범주나 큰 주제들이 서로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도출된 3가지의 주제는 부모상담의 중요성, 부모상담의 어려움, 그리고 효과적이었던 개입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모상담의 중요성’에는 3개의 범주가 포함되었는데, 부모상담의 효과, 효과와 관련된 변인, 찾아가는 상담에서 있어 부모상담의 의미 등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주제인 ‘부모상담의 어려움’에서 추출된 3개의 범주는 청소년동반자 사례 자체의 심각성, 부모상담의 고비, 그리고 구조적 문제 등이 나타났다. 세 번째로, ‘효과적이었던 개입’이라는 주제 하에 전문성과 신뢰, 성공적인 첫면담, 실제적인 도움, 상담 외적인 관심과 도움 등 4개의 범주가 포함되었다.

<표 2> 청소년동반자와 부모의 상담 경험에 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분석 결과

주제	범주	하위범주	동반자	부모
부모 상담의 중요성	부모상담의 효과	• 부모개입 여부에 따라 확연한 차이	○	
		• 상담기간을 단축시켜 줌		
	효과와 관련된 변인	• 원가족 관계에 대한 통찰		○
		• 비협조적 부모를 한 팀이 되게 함		
부모 상담의 어려움	찾아가는 상담에 있어 부모상담의 의미	• 자녀가 어릴수록, 문제가 심각할수록 더 중요함	○	
		• 부모의 동기가 낮을수록 더 중요함		
	사례 자체의 심각성	• 형편이 어려울수록 아이들이 더 우선되어야 함		○
		• 부모가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아이가 빨리 좋아짐		
효과적이었던 개입	전문성과 신뢰	• 부모접촉이 용이하여 부모상담에 유리	○	
		• 내담자 생활환경을 파악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개입지 점이 분명히 드러남		
	성공적인 첫 면담	• 고위험 저자원의 동반자 사례 특성	○	
		• 자녀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한 부모의 낙담과 포기		
상담 외적인 관심과 도움	실제적인 도움	• 자녀문제 앞에서 느낀 좌절감		○
		•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당혹감		
	상담 외적인 관심과 도움	• 초기에 나타나는 부모와의 경쟁구도와 실패 경험	○	
		• 상담에서 부모의 역할 등 상담구조화의 기틀잡기		
효과적이었던 개입	성공적인 첫 면담	• 타 기관 의뢰 시 탈락률 높음	○	
		• 짧은 상담기간으로 부모상담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실제적인 도움	• 강한 부모에게 휘둘리지 않고 중심잡기	○	
		• 심리검사 등 객관적 정보 전달		
상담 외적인 관심과 도움	성공적인 첫 면담	• 부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		○
		•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신뢰		
	실제적인 도움	• 부모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위로	○	
		• 강점에 대한 강조		
효과적이었던 개입	성공적인 첫 면담	• 첫 면담에서 상담동기 형성		○
		• 기선제압		
	실제적인 도움	• 문제보다는 기술로 접근	○	
		• 구체적인 양육기술을 연습하고 처방함		○
효과적이었던 개입	성공적인 첫 면담	• 의사소통, 갈등해결 기술 학습		
		•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	
	실제적인 도움	• 심리상담 외의 서비스 제공		
		• 상담시간 외의 전화와 관심		○

1. 부모상담의 중요성

FGI에 참여한 청소년동반자들과 부모들은 예외 없이 청소년 상담에 있어 부모상담의 중요성에 대해 강한 동의를 표현하였다. 청소년동반자들은 청소년상담의 효과가 부모개입 여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며 부모개입이 잘 이루어졌을 때 상담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부모들 역시 자녀 상담에 있어 부모를 함께 상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동반자들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상담을 통해 부모의 원가족 관계에 대한 통찰에 이르게 됨으로써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처음에 비협조적이었던 배우자까지 상담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자녀에게 다가가게 되었다고 부모상담의 효과를 피력하였다. 청소년동반자들은 이러한 부모상담의 효과는 자녀가 어릴수록, 내담자의 현재 문제가 심각할수록 더 비중이 커지며, 상담동기가 낮은 부모일수록 부모상담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그만큼 상담자가 공을 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부모들도 형편이 어려운 가정일수록 자녀의 문제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며 강조하였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변화가 클수록 아이의 문제도 빨리 해결되는 상승작용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특히 청소년동반자들의 경우 찾아가는 상담이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상담에 비해 부모상담이 가지는 의미가 더 크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내담자의 집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부모와의 접촉이 용이하여 개입에 유리하고, 내담자 생활환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개입지점을 명확히 할 수 있어서 부모상담이 한층 효과적일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가. 부모상담의 효과

- 부모개입 여부에 따라 확연한 차이

그게 개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정말 차이가 크죠.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같이, 같은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의 바람을 얘기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동반자 B)

- 상담기간을 단축시켜 줌

상담을 20회기 한다면 부모랑 같이 하는 경우에는 10회기 정도로 앞당겨질 정도로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동반자 B)

- 원가족 관계에 대한 통찰

정서적으로 애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집에 없었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자라면서 엄마한테 특별히 뭐 사랑을 받고 큰 거는 아닌 거 같고, 저 혼자 그냥 큰 거더라고요(웃음).

그니깐 제가 사랑을 못 배워서 애한테도 사랑을 못 주었다는, 하여튼 그 때 상담 받으면서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어머니 B)

- 비협조적 부모를 한 팀이 되게 함

아빠가 애를 안 보려고 했거든요. 워낙 기대가 커서 아들 하나라 실망이 컸나 봐요. 저는 중간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아빠 상담을 남자 상담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조금 바뀌더라고요. 칭찬도 많이 해주고 스킨십도 많이 해주고 다독여주고 하니깐 애가 좀 안정이 많이 됐죠. 병원 의사 선생님보다 저는 상담 선생님한테 도움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A)

나. 효과와 관련된 변인

- 자녀가 어릴수록, 문제가 심각할수록 더 중요함

초등학생은 부모님 개입을 안 하면 상담 자체가 안 돼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모상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신경증이나 정신증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꼭 부모님을 매주 뵙고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라든지 소통에 대해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이 찾아가든지 뵙든지 해서...(동반자 E)

- 부모의 동기가 낮을수록 더 중요함

법원명령처분을 받은 아이들은 특히 부모님들이 바쁘시고 대부분 손을 놓는 경우가 많으시고 포기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강압성을 가지고 참여를 해달라고 부탁하려고요.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오면서 차 안에서 이야기도 하고 하니깐 그 과정에서도 친해지더라고요. (동반자 B)

- 형편이 어려울수록 아이들이 더 우선되어야 함

관심이 없거나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형편이 안 좋을수록 그런 가정일수록 애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죠. (어머니 C)

- 부모가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아이가 빨리 좋아짐

애가 걱정되면 적극적으로 나서고... 저는 너무 딸래미가 마음이 아프고 걸리더라고요. 그게 부모가 바뀌면 치료가 빠른 건데... 엄마가 행복해야 딸도 행복하다고 그 말이 정말 정답이더라고요. (어머니 C)

다. 찾아가는 상담에 있어 부모상담의 의미

- 부모접촉이 용이하여 부모상담에 유리

조금 다른 부분이 동반자 상담은 가정으로 가잖아요. 거기 가면 부모님이 계신다는 거, 매회기 찾아오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가면 부모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 같고... (동반자 D)

- 내담자 생활환경을 파악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개입지점이 분명히 드러남

아버지가 연락을 해서 우리 애가 말도 안 하고 이상하다 해서 마침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찾아갔는데, 그 집이 반지하인데 골목을 들어서서 순간부터 그 어떤 냄새가 나기 시작해서...(중략) 제가 그렇게 방문을 한 거는 잘 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됐어요. (동반자 H)

2. 부모상담의 어려움

청소년동반자들이 경험하는 부모상담의 어려움은 대부분 청소년동반자 사례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내담자가 지닌 문제나 위기 정도는 매우 심각하면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내적 외적 자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내담자와 부모 모두 상담에 끌어들이기 어렵고 사례관리도 더 까다로운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경우 자녀 문제가 심각하고 통제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 낙담하거나 쉽게 자녀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 부모상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부모들은 상담을 돌이켜 볼 때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녀의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부모로서 느낀 좌절과 당혹감을 잊을 수 없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많은 청소년동반자들은 동반자 상담경력이 시작되었던 초기에 소위 ‘강한 부모’를 다루는 데 실패하거나 부모와 경쟁적 구도 하에서 대립함으로써 상담자로서 어려운 고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고비는 상담자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스스로 가지게 됨으로써, 그리고 부모에게 상담에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상담구조화의 기틀을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차츰 극복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상담의 어려움은 부모를 내담자로 하는 상담을 지양하도록 되어있는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내부 규정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부모를 조력자, 협력자로 바라보는 관점을 강조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실정상 부모 개인 상담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렇게 의뢰된 경우 상담 탈락률이 높고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 동반자들의 합의된 의견이었다. 또한 단기상담이라는 청소년동반자 상담의 포맷으로는 부모 상담까지 충분히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가. 사례 자체의 심각성

- 고위험 저자원의 동반자 사례 특성

동반자 사례가 저희가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서 요청되기 때문에 일반상담 사례 보다는 좀 더 심각하고 가정환경도 열악하고 부모님들도 경제적으로 일터에 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더 심약해서 아예 일을 못하시는 상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을 상담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협력이 잘 안 되고 현실적인 문제도 많고... (동반자 C)

- 자녀문제 심각성으로 인한 부모의 낙담과 포기

정말 방관자적으로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으니 선생님이 어떻게 해 주세요 하는 부모님... 아이의 분노 게이지가 너무 심하거나 부모를 팬다거나 집의 물건을 부수거나 이래서 부모님과 아이가 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아예 관여를 안 하시려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하고 컨택을 해서 부모상담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어렵죠. (동반자 C)

- 자녀문제 앞에서 느낀 좌절감

그 때 막 제가 애 때문에 몸무게가 5킬로그램이나 빠졌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고, 다음 날 아침에 정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어머니 A).

-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당혹감

뭘 할 수가 없고, 밥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 아이지만. 그게 너무 갑자기 닥친 일이라서 힘들었죠.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상담선생님 앞에서 벌벌벌거리고. (어머니 B)

나. 부모상담의 고비

- 초기에 나타나는 부모와의 경쟁구도와 실패경험

처음 시작했을 때는 부모랑 많이 경쟁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6개월 그렇게 싸우고 나니까 부모를 협력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꼬시는 법을 많이 연구해서.... (동반자 G)

- 상담에서 부모의 역할 등 상담구조화의 기틀잡기

부모님한테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상담구조화라는 부분에서 내가 상담자로서 돕는다는 게 뭔지 조금 정리를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동반자 E)

다. 구조적 문제

- 타 기관 의뢰 시 탈락을 높음

저희가 엄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가십시오, 하면 안 가시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아이 상담하면 그래도 부모님들이 협력을 하시는 편이잖아요. 부부상담은 안 하셔도... 부모를 부르기 참 좋은 케이스인데, 저희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반자 C)

- 짧은 상담기간으로 부모상담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우리가 상담기간이 무한정이 아니고 3개월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8회기 만나다 보니까 가족에 문제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저는 3개월 개입하고 또 텀을 두고 또 3개월 개입하고... 그런 식으로 3년을 꾸준히 만나니까 그래서야 아이들이 좋아지고 부모님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동반자 A)

3. 효과적이었던 개입

청소년동반자들이 그동안의 사례와 상담경험을 되돌아볼 때 특히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하는 부모개입 요소들은 부모들이 언급한 상담자로부터 도움 받은 것, 상담자 개입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전문성과 신뢰, 성공적인 첫 면담, 실제적인 도움, 상담 외적인 관심과 도움 등 4가지 범주가 청소년동반자와 부모 인터뷰에서 공통으로 도출되었다. 먼저, 청소년동반자들은 강한 부모에게 휘둘리지 않고 상담자로서 중심을 잡는 것과 심리검사 해석이나 참고자료 소개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상담자의 전문성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신뢰를 얻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언급하였다. 부모 역시 부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신뢰가 상담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첫 면담의 성공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청소년동반자들이 생각하는 성공적 첫 면담의 특징에는 자녀의 어려움보다 먼저 부모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었던 점, 잘못된 것보다는 부모가 잘해 온 것과 강점을 찾아내 칭찬하고 지지해 주었던 점 등이 거론되었다. 성공적 첫 면담에 대한 기억으로 부모들은 흔들리는 부모를 붙잡아 준 힘 있는 개입으로 상담동기를 형성해 준 점을 떠올렸다. 세번째, 청소년동반자와 부모 모두 구체적인 양육기술의 훈련과 과제 부여를 통한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했던 것이 상담 성과에 주효했다고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 입장에서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비롯한 상담 외적인 관심과 도움도 매우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가. 전문성과 신뢰

- 강한 부모에게 휘둘리지 않고 중심잡기

청소년 뒤에는 더 강력한 부모가 항상 존재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썬 어머니를 만나면 참 절충을 하고 조절을 한다는 게 어려워질 때가 있지만 부모님이 어느 정도 탐색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적절하게 조금 힘을 주고 얘기하려고 해요. (동반자 E)

- 심리검사 등 객관적 정보 전달

심리검사 결과에 대해 부모님을 볼 수 있으면 꼭 띄려고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 그런 방향으로 부모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동반자 E)

- 부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

상담하고 나서 생각했죠. 어쩔 그렇게 나를 잘 캐치할 수 있었을까?... 아, 달리 선생님이 아니구나. 내가 딸을 대하는 걸 보고 어른이 애를 대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끼리 하는 것처럼 유치하게 대한다는 걸 어떻게 딱 알지? 신기했어요. (어머니 C)

-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신뢰

이쪽으로 전문가이신 거 같더라고요. 잘 꼬집어내시고... 하는 거 보면 딱 알잖아요. 애한테 하시는 거 보고 믿음이 갔죠. (어머니 A)

나. 성공적인 첫 면담

- 부모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위로

저는 부모상담을 중점적으로 해요. 아이가 상태가 안 좋으면 부모를 먼저 오시게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는지, 부모의 죄책감이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로 잘 꼬셔요. (동반자 G)

- 강점에 대한 강조

늘 칭찬을 해요 끝없이. 그래서 부모가 자신감이 생기면 좋죠. 초반 1회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가장 잘 아신다, 이런 멘트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희는 부모님에게 들어야지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다, 그 메시지를 많이 주면 약간 녹으시

는 것 같아요. 부드러워지시고 그 작업을 초반에 많이 해 뒤야 되는 것 같아요. (동반자 C)

- 첫 면담에서 상담동기 형성

엄마가 강하게 마음을 먹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첫 면담에서 제가 와 닿았고 힘을 얻었죠. 살아야 한다고, 엄마가 건강해야.. 처음 면담이 인상이 강했죠. (어머니 B)

- 기선제압

제 기를 눌렀던 것 같아요. 대화법이 좀 강하게 나갔죠. 다 내가 옳다고 살아왔는데, 제가 옳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별별별 거리니깐, 거의 뭐 헬썹해져서 막 울면서 얘기하니깐 선생님이 흔들리지 말고 중심잡으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 B)

다. 실제적인 도움

- 문제보다는 기술로 접근

저는 부모상담을 중점적으로 해서 아이보다 부모를 먼저 오게 해요. 애썼다, 그런데 당신의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리 둘이 그거 좀 해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의 문제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축소해서 시작해요. (동반자 G)

- 구체적인 양육기술을 연습하고 처방함

자신감을 키워주고 칭찬해주고 하면 좋아질 거다, 선생님이 얘기해 준대로 처방해준 대로 저는 선생님만 믿고 그렇게 숙제를 했죠. (어머니 B)

- 의사소통, 갈등해결 기술 학습

애가 이렇게 물어볼 땐 이렇게 대답하고, 애가 감정을 표현하면 어 그러니? 하면서 수용을 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엄마 생각을 말하라고요. 그렇게 했죠. 집에 와서도. 근데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저를 많이 내려놓았죠. (어머니 B)

라. 상담 외적인 관심과 도움

-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찾아가는 상담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연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조손가정은 희망상자 서비스나 그런 게 있으면 항상 리스트에 올라가죠. (동반자 B)

- 심리상담 외의 서비스 제공

문화체험을 간 적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거든요. 엄마들도 지치고 힘들잖아요. 제주도 체험이 있었거든요. 어머님도 처음 경험한 거고, 거기 갔다 오고서 아이하고 관계가 좋아졌거든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효과가 더 좋은 거 같아요. (동반자 B)

- 상담시간 외의 전화와 관심

상담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계속 신경 써 주시고 전화도 해 주시고, 영화도 보여주시고 학교 잘 다니는지 가끔씩 문자 연락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저는 너무 감사해서 선뜻 오게 됐어요. (어머니 C)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례의 위기적 특성이 강하고 방문상담이라는 특수한 형태를 띠는 청소년동반자상담 과정 중에서 상담의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부모상담을 청소년동반자와 부모가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 생생하고 독특한 느낌과 견해들을 포착하기 위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 방법을 활용한 질적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3가지의 주제와 1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3가지의 주제는 부모상담의 중요성, 부모상담의 어려움, 그리고 효과적이었던 개입 등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주제인 ‘부모상담의 중요성’에는 3개의 범주가 포함되었는데, 부모상담의 효과, 효과와 관련된 변인, 찾아가는 상담에서 있어 부모상담의 의미 등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주제인 ‘부모상담의 어려움’에서 추출된 3개의 범주는 청소년동반자 사례 자체의 심각성, 부모상담의 고비, 그리고 구조적 문제 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이었던 개입’이라는 주제 하에 전문성과 신뢰, 성공적인 첫 면담, 실제적인 도움, 상담 외적인 관심과 도움 등 4개의 범주가 포함되었다. 연구를 시작할 시점에서는 청소년동반자와 부모 간에 서로 다른 경험의 주제와 범주들이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도출될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실제 분석의 결과는 이와 달리 하위범주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청소년동반자와 부모가 진술하는 경험의 범주나 큰 주제들이 서로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아마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데서 비롯된 참여자 특성, 특히 성공적 상담 경험을 가진 참여자들의 특성이 상당히 광범위한 공통분모를 발생시킨 데 따른 결과가 아닐까 사료된다. 결과에 따른 보다 상세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FGI에 참여한 청소년동반자들과 부모들은 청소년 상담에 있어 부모상담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일치된 의견을 표명하였다. 청소년동반자들은 청소년 상담의 효과가 부모개입

여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며 그런 점에서 찾아가는 동반자 상담은 부모에 대한 개입지점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입을 모았다. 부모들 역시 부모의 협조와 적극성이 상담의 성과를 가른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는 부모가 상담에 협조하면 아동 및 청소년의 상담 효과가 더 크고 (Greenwald, 2002), 부모의 지지와 협조는 자녀 상담에 필수적 요소이며 (Schaefer, 2006), 부모와 자녀를 함께 포함한 치료동맹을 맺어야 부모의 변화와 자녀의 변화가 상호보완적 작용을 통해 성공적인 상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혜리, 2010)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재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체계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위기청소년을 조력하는 청소년동반자 사업에 반드시 부모에 대한 상담과 개입이 도모되고 또한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 부모상담은 현재 청소년상담 현장의 여건 하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아동 및 청소년상담에서 부모상담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근래에 와서야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는 물론 전문적 교육과 훈련의 영역에서도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청소년동반자들은 어려운 사례를 접했을 때 동료들과 논의하거나 혹은 순전히 개인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부모상담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부모상담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충분한데 이를 만족시킬만한 전문 인력과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개인 내담자로서 부모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거나 혹은 연계성이 낮고 탈락율도 높은 타 기관 의뢰에 의존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속히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두 번째 주제인 '부모상담의 어려움'은 대부분 청소년동반자 사례의 특수성, 즉 내담자가 지닌 문제나 위기 정도는 매우 심각하면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내적 외적 자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내담자와 부모 모두 상담에 끌어들이기 어렵고 사례관리도 더 까다로운 특성을 반영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홍혜숙과 왕은자(2016)는 일반청소년 상담에 비해 청소년동반자 상담의 내담자들이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 비협조성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에 해당하는 부모가 상담에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상담자를 평가하는 행위를 더 많이 나타낸다는 점이 상담과정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요컨대 청소년동반자 상담은 내담자의 위기 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상담에 대한 준비도나 이해도가 낮아 일반청소년 상담에 비해 부모상담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다시 확인되었다. 이처럼 사례 자체가 지닌 심각성이 크다보니 부모들은 자녀의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부모로서 느낀 좌절과 당혹감을 잊을 수 없다고 토로하였다. 서구의 부부중심 가족관계와는 달리 한국의 가족은 부자중심 가족주의 이념이 강하여 자녀의 실패나 부적응에 대한 부모의 좌절과 낙담을 한층 가중시킨다.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2008)은 한국의 상담자들이 고려할 점으로 우선적으로 꼽아야 할 것으로 바로 이 부자중심 가족주의, 즉 부모-자녀 관계가 배우자와의 관계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성을 꼽았다. 그러므로 아동 청소년상담에 있어서 부모가 경험하는 깊은 좌절과 당혹감을 충분히 다루어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청소년상담자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의 좌절과 당혹감 못지않게 청소년 동반자들 역시 상담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시절에 특히 부모상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였다고 토로하였다. Stein과 Lambert(1984)는 문제가 심각할수록 상담자의 경력이 상담에서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사례 자체의 위기 정도와 심각성이 일반청소년상담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청소년동반자 상담의 경우 장기 경력자가 단기 경력의 청소년동반자를 일대일로 슈퍼비전하고 지원하는 멘토링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모상담을 하면서 청소년동반자가 경험했던 초기의 이러한 고비는 상담자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스스로 가지게 됨으로써, 그리고 부모에게 상담이란 무엇이고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상담구조화의 기틀을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차츰 극복해 나간 것으로 본 연구의 FGI 분석 결과 나타났다. 청소년동반자들을 대상으로 부모상담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지를 조사한 노성덕 등(2016)의 연구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73.5%가 “부모가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나 다음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인 항목이 “생계를 우선으로 생각함”(65.0%), “자녀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63.3%), “부모가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60.5%) 순으로 나타나, 비록 문제의 상당한 원인이 부모 자신에게 있다는 치더라도 부모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상담 받아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자녀의 상담에 대해서도 협력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담 초기에 상담자의 판단대로 부모를 문제의 원인으로 개념화하고 아직은 준비가 안 된 부모를 추궁하다 보면 부모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 본 연구에 참여했던 청소년동반자들이 사용한 전략은 부모를 서서히 준비시켜 상담에 임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담이란 무엇이고 이번 상담에서 부모는 내담자가 아니라 협조자이며 이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지를 협의해 나감으로써 해결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모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초기 상담구조화의 예시문 등이 청소년동반자에게 보급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첫 번째 주제인 ‘부모상담의 중요성’과 두 번째 주제인 ‘부모상담의 어려움’에서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주제인 ‘효과적이었던 개입’에서도 청소년동반자와 부모 양측 간에 거의 이견이 없이 유사한 맥락의 경험들을 보여주었다. 먼저, 청소년동반자들은 상담자로서 중심을 잡는 것과 상담자의 전문성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언급하였다. 부모 역시 부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신뢰가 상담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하였다. 상담을 받는 내담자가 상담을 도움된 경험으로 인식하는 데는 내담자가 상담자를 얼마나 전문적이고 신뢰롭다고 지각하는지가 중요하며, 상담자를 더 전문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내담자에게 미치는 상담자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다음 상담 약속을 더 잘 이행한다(신재호, 정남운, 2007)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례개념화 능력을 비롯한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키우는 노력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상담의 성과를 좌우하는 두 번째 요소로서 첫 면담의 성공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청소년동반자들이 생각하는 성공적 첫 면담의 특징에는 상담자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줌으로써 마음을 쉽게 열게 만들어 주었던 점, 자녀의 어려움보다 먼저 부모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었던 점, 잘못된 것보다는 부모가 잘해 온 것과 강점을 찾아내 칭찬하고 지지해 주었던 점 등이 거론되었다. 이런 결과는 낮은 상담성가를 보인 내담자들이 상담에서 무엇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질적분석(권경인, 한영주, 김창대, 유성경, 2011)에서 초반에 상담이 곁돌면서 밋밋하며 깊어지는 계기가 없을 때 내담자들은 그 상담에서 성과를 얻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첫 면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드러내거나 정확한 문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상태로 상담이 진행될 경우 성과가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특히 첫 면담에서 자녀의 어려움보다 먼저 부모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었던 점을 성공의 열쇠라고 꼽은 것은 상담의 성과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상담자의 공감이라고 밝힌 다수의 선행 연구들(박가람, 정남운, 2008; 박성희, 2000; 신재호, 정남운, 2007)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하겠다. 유미숙, 장경선, 한영신(2013)은 상담자가 자녀의 안녕에만 관심을 두고 부모의 심리적인 고통을 공감하지 못한 채 초기부터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이나 생활 방식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수정할 것을 종용한다면 부모들이 감당하기 힘든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자존감에 위협을 느낄 수 있으며 자기 방어와 저항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공적 첫 면담에 대한 기억으로 부모들은 흔들리는 자신을 붙잡아 준 힘 있는 개입으로 상담동기를 형성해 준 점, 그리고 상담자가 주도권을 잡고 소위 기선제압을 해주었던 점을 떠올렸다. 이는 내담자들은 적어도 초기에 상담자에 대해 동등하다는 느낌보다는 앞서가는 어른, 멘토, 교사, 스승,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잡아주는 의존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상담자에 대한 기대를 가진다는 연구결과(이은경, 양난미, 서은경, 2007)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김창대 등(2008)도 한국적 상황에서 내담자들은 서구의 내담자들보다 상담자에게 더 많이 의존의 욕구를 느낀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동반자 상담 초기에 부모의 심정에 공감하면서 상담자에게 의지하고 지도받고 싶어 하는 부모의 욕구를 자연스럽게 수용해줌으로써 더 좋은 상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효과적이었던 개입의 세 번째 범주는 실제적인 도움이었다. 청소년동반자와 부모 모두 구체적인 양육기술의 훈련과 과제 부여를 통한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했던 것이 상담 성과에 주효했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서구의 상담이론이나 교과서에서 개입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해지는 부분에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상담에 있어 중요한 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요소라는 김창대 등(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권경인 등(2011)도 내담자들은 현실적인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고 싶은 욕구가 큰데 상담자들은 좀 더 근본적인 이해나 가족역동의 이해 또는 내담자의 전반적 이해에 초점

을 두어서 목표설정의 차이가 생길 때는 상담의 성과가 좋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동반자들이 부모상담을 실시할 때 근본적인 가족의 역동이나 부모 개인의 성격적 문제를 다루려고 하기 보다는 지금 당면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부모와 공유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제대로 얻어가는 상담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FGI 참여자들은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비롯한 상담 외적인 도움과 상담자 개인의 관심과 성실성도 매우 효과적인 개입이었다고 피력하였다. 청소년동반자가 상담시간 외에도 자주 전화를 하거나 관심을 표명해 준 것에 감동을 받았다는 내담자 부모의 언급은 어쩌면 서구에서 말하는 상담자 윤리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김창대 등(2008)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사적이고 정서적으로 끈끈한 관계의 경험이 한국적 상담에서 성과를 가져오는 요인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동반자들이 내담자와 부모를 만날 때 그들의 안녕을 해치지 않는 윤리적 범위 안에서 사적이고 정서적으로 끈끈한 관계의 경험을 상담 성과의 한 요소로 잘 활용하는 간단한 팁이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도 부모상담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동반자 부모상담 과정에서 청소년동반자와 청소년의 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생생하고 독특한 느낌과 견해들을 탐색하고 밝힘으로써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제적인 부모상담 가이드라인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질적 내실화에 기여하였다는 데 의의를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일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동반자들만으로 이루어진 점, 특히 부모들은 성공적 사례의 어머니들로만 구성된 점, 청소년동반자와 부모 그룹 간의 참여자 수에 있어서 불균형 등으로 일반화에 한계를 가진다. 향후 상담성과가 낮은 사례와 부모 중 아버지의 견해가 담긴 후속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내담자인 청소년 자녀의 경험도 함께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주 (2013). 자녀의 놀이치료과정에서 어머니의 부모상담 체험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권경인, 한영주, 김창대, 유성경 (2011). 상담성과가 낮은 내담자들의 상담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상담학연구, 12(6), 1977-2005.
- 권현용 (2013). 청소년 동반자의 상담사례를 통한 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질적 분석. 인문학논총, 33, 151-181.
- 기채영 (2006). 놀이치료에서 부모상담의 치료성과요인 및 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놀이치료학회지, 9(2), 41-58
- 김광웅 (2009). 놀이치료에서의 부모상담 실태조사 연구. 놀이치료연구, 12(1), 47-63.

- 김동일, 최수미 (2008). CYS-Net 상담서비스 이용이 위기 청소년의 심리내적 및 환경적 위기 수준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9(3), 129-146.
- 김성재, 김후자, 이경자, 이선옥 (2000).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 서울: 현문사.
-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상담학연구*, 9(3), pp.961-986.
- 노성덕, 이대형 (2011). 청소년동반자 활동 매뉴얼(개정판). 한국청소년상담원.
- 노성덕, 정재우, 김태성, 김경희, 이미현, 배희분 (2016). 청소년동반자의 부모상담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인문학논총*, 42(8), 183-215.
- 류수진 (2011). 아동상담자가 부모상담 시 경험하는 어려움,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가람, 정남운 (2008). 성폭력 상담에서 내담자들 이 지각한 도움경험 질적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61-182.
- 박성희 (2000). 상담효과를 가져오는 상담관계의 특성. *초등교육연구*, 14(1), 167-180.
- 박자영 (2009). 아동상담자가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바람직한 부모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차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3(1), 149-173.
- 신경림, 장연집, 김영경, 이금재, 최명민, 김혜영, 김옥현, 김영혜(2004). 질적연구방법 포커스 그룹. 서울: 현문사.
- 신재호, 정남운 (2007). 초보상담자의 상담성과에 관한 질적분석: 도움된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pp889-911.
- 여성가족부 (2016). 2016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 오경자, 이기학, 지승희 (2005).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청소년위원회.
- 유미숙, 장경선, 한영신 (2013). 놀이치료자의 부모상담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4(2), 951-971.
- 윤연정, 이미숙, 진춘애 (2011). 가족건강성과 부모감독,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2), 113-126.
- 이상균 (2008). 청소년 비행행동에 대한 부모양육행동과 비행친구집단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27, 121-151.
- 이수희, 유태명 (2008).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한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 교육과정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3), 107-129.
- 이윤주, 김계현 (2002).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수행능력과 상담 경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4(2), 257-272.

- 이은경, 양난미, 서은경 (2007). 한국에서의 상담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9(3), pp587-607.
- 이은선 (2016). 청소년동반자의 작업동맹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전혜리 (2010). 아동·청소년 상담에서의 부모상담의 유형과 효과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 시설환경*, 8(4), 3-20.
- 정병삼 (2010). 부모-자녀애착과 부모지도감독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4), 5-30.
- 정재우 (2013).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가출경험 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조윤주 (2013).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과 학습행동 통제 간의 관계에서 부모감독의 조절효과. *대한가정학회지*, 51(2), 253-251.
- 주선영, 김광웅 (2005). 놀이치료에서의 부모상담 현황 및 부모상담에 대한 상담자, 부모의 인식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8(1), 49-60.
- 최명선, 김광웅 (2005). 아동상담에서 부모와 치료자간 치료관계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26(3), 111-125.
- 홍혜숙, 왕은자 (2016). 청소년동반자가 지각한 상담과정 알아차림 방해요소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4(2), 365-385.
- 황순길, 손재환, 전연진, 송미경, 김태성, 명재신, 양민정, 허미경, 김남희 (2014).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청소년유형에 따른 상담요구 및 성공적 상담을 위한 요인 도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Bernard, J. M., & Goodyear, R. K. (2009). *Fundamentals of clinical supervision*(4th ed.). Boston: Pearson Education.
- Brown, B. B., Mounts, N., Lamborn, S. D., & Steinberg, L. (1993). Parenting practices and peer group affili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4(2), 467-482.
- Greenbaum, T. (2001). Online focus groups are no substitute for the real thing. *Quirk's Marketing Research Overview*, June 2001.
- Greenwald, R. (2002). *Child Trauma Handbook*, 마음을 다친 아동청소년을 위한 핸드북. 정성훈, 정문선 공역. 서울: 학지사.
- Hsieh, H., & Shannon, S. E (2005).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5(9), pp 1277-1288.
- Kerr, M., Stattin, H., & Burk. W. J. (2010). A reinterpretation of parental monitoring in longitudinal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0(1), 39-64.

- Krueger, R. A. & Casey, M.A.(2000).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3rd ed). Newbery Park, CA; Sage.
- Kruger, R. A. (1998). *Analysing and reporting focus group results*(Focus Group Kit 6). Thousand Oak, CA; Sage.
- McGuire, D. K. & McGuire, D. E. (2008). 놀이치료에서의 부모상담. (김광웅, 강은주, 진화숙 역). 서울:시그마프레스.
- Schaefer, Charles E. (2006). 놀이치료의 기초. 김은정(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Stein, D.M.,& Lambert, M.J. (1984).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rapist experience and psychotherapy outcome. *Clinical Psychology Review*, 4, 127-142.

A Study on the Parent Counseling Experience of Youth Companion and Clients' Parents

Bae Heeboon Lee Meehyun Rho Sungduk Jung JaeWoo Kim Taesung Kim Kyunghee
Sangmyung University Korea Youth Counselling & Welfare Institute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qualitative analysis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to explore vivid and unique feelings and views of Youth Companion(YC) and adolescent clients' parents who have a profound influence on their child's counseling effect. Three main themes and 10 categories were derived from the focus group interviews for the YC and clients' parents. The three themes were the importance of parent counseling, the difficulty of parent counseling, and the effective interventions. The first topic, "the importance of parent counseling," included three categories, which were the effect of parent counseling, the variables related to effectiveness, and the meaning of parent counseling in visiting counseling. The second theme, 'difficulties of parent counseling,' included three categories: severity of parental cases, parental counseling, and structural problems. Finally, under the theme of 'effective intervention', four categories were included: expertise and trust, successful first interview, practical help, and non-counseling support and personal attention. Subcategories and examples were presented, and discussion point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mentioned.

Key words : Youth Companion, parent counseling, focus group interview